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43 색채와 자동차

“은색 차를 즐겨 타는 사람, 점잖은 성품으로 주변 호감”

경주용 자동차 벤츠 ‘은빛 화살’

은색은 가장 빠른 색이다. 독일의 경주용 자동차 벤츠는 은색으로 ‘은빛 화살’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다. 1934년 누르부르크(Nurburg) 자동차 경주용에 할당된 벤츠의 색은 하양이었으나 전날 밤 허가된 무게보다 1kg이 더 무거워 하양색을 벗겨 내고 알루미늄 은색(Silver look)으로 달려 승리를 거두었다.



화살처럼 빠른 은색은 비행기와 로켓 그리고 고속 기관차를 떠올리며, 이 색은 기능적이다. 속도의 은색은 더 이상 귀금속의 색이 아니라 현대적인 경금속의 색이다.

1983년 노무라 준이치(野村純一)는 일본에서 교통 사고율이 높은 자동차 색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일본에서 교통 사고율이 높은 자동차 색으로는 회색이 3위(17%)로 나타났다.

각 지역의 환경, 빛의 강약, 온도, 습도, 생활 패턴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나타난다. 대형차는 검정을 중심으로 어두운색을 선호하고,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일수록 어두운색(검정 또는 짙은 색 종류)을 선호한다. 소형차는 밝고 경쾌한 색을 선호한다.

박혜란은 1988년 그의 논문인 「한국인의 승용차 색채선호도와 Image에 관한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8.」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자동차 색상을 조사하였다. 색상으로는 밤색, 빨강, 백색, 은색, 파랑, 베이지

색, 하늘색, 검정, 회색 9가지 색을 제시하였다. 20대에서 50대까지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 색깔은 도시의 색상인 회색이 3위(12.5%)로 나타났고, 은색이 9위(2.08%)로 나타났다.

20대에서는 백색이 1위(9.03%), 파랑이 2위(3.47%), 회색이 3위(2.78%), 공동 5위인 하늘색과 검정(2.08%), 공동 8위인 빨강과 은색 그리고 베이지색(1.39%), 밤색이 9위(0.69%)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공동인 2위인 백색과 파랑(9.03%), 회색이 3위(6.25%), 하늘색이 4위(4.86%), 베이지색이 5위(4.17%), 밤색이 6위(2.78%), 검정이 7위(1.39%), 공동 9위로 빨강과 은색(0.69%)이 나타났다.

40대에서는 백색이 1위(11.81%), 파랑이 2위(4.17%), 회색이 3위(3.47%), 빨강이 4위(2.08%), 하늘색이 5위(1.39%), 공동 7위인 베이지색과 검정(0.69%), 밤색과 은색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50대에서는 백색이 1위(6.25%), 파랑이 2위(2.78%), 베이지색이 3위(2.08%), 하늘색이 4위(1.39%), 나머지 색인 밤색, 빨강, 은색, 검정, 회색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1993년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 색깔로 운전자의 개성을 11가지로 정리하였다. 은색 차를 즐겨 타는 사람은 점잖은 성품으로 주위로부터 호감을 사며, 사업 면에서도 성공적이다.

1994년 8월부터 11월까지 현대자동차 색상별 판매 결과에 따르면, 엑센트 차종의 하양은 1만 4천 7백 22대로 38.6% 차지했고, 은색은 18.2%, 청록은 15.8%으로 이들의 색상이 70%를 넘었다. 반면 연록은 1.2%, 주홍은 2.6%, 황적은 3.2%, 적회색은 4.0%이었다. 하얀 스퀴프는 73.2%로 압도적이었다. 엘란트라는 청색, 백색, 은색이 대부분이었다.

1994년 8월부터 11월까지 기아자동차 색상별 판매 결과에 따르면, 율해 해 동안에 하양이 25.4%, 자주가 19.0%, 군청이 17.8%가 팔렸다. 청록은 0.4%, 상록수색은 2.6%, 은색은 7.3%, 진분홍색은 7.6%로 판매가 저조하였다.



문화예술 기획사/철학박사·미학전문



기고 김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장

900만톤 수돗물의 절감 지방상수도 현대화 결실

정부는 새 물을 잡기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와 상수도 구간별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량을 감시하여 신속한 누수 탐사와 복구를 하는 것이 현대화사업의 골자다. 본 사업은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시행되는데 점차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간의 노력으로 정비된 상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것. 현대화사업을 통해 누수되는 수량을 줄여놓아도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 누수는 다시 발생하기 마련이다.

환경부도 사업 성과를 향후 10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자체에 유지관리와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3조원 이상 투입된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

작년 상반기 광주·전남지역은 최악의 가뭄에 따른 식수난과 제한급수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물 절약 캠페인 참여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연계 관리, 그리고 때마침 내린 강수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할 안정적인 물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역 내 물 자족을 실현할 물 환경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은 예상되는 피해를 차단할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상기후를 고려해 기존의 댐과 수자원

인프라를 보강해 물 리스크에 대응하고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중에 버려지는 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극한 가뭄의 피해가 우려되는 전남지역의 경우 새 물을 잡는 것이 우선이다.

2022년 한해동안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수돗물의 약 20%에 해당하는 5000만톤이 주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라졌다.

평균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727억원에 달한다. 국내 유일의 물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남지역에서 7개 지자체(신안, 강진, 보성, 곡성, 해남, 무안, 함평)와 손잡고 2017년부터 새 물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2023년 12월까지 약 900만톤(약 131억원)이 넘는 수돗물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 2022년 가뭄이 극심했던 완도군 주민이 1년 9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에 해당된다. 이러한 노후 상수관망 인프라 개선은 열악한 전남지역의 정주여건 향상을 가져와 지역사회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돗물 생산원가를 낮춤으로써 절감된 예산을 지역주민들의 복지 등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

낮은 수도요금 현실화, 어려운 재정여건, 급수인구의 감소 등 지자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해보면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중장기 계획수립과 시행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

“난 이름을 얻는데 연연하지 않는다”

세상읽기



한정규 자유기고가

이 세상에 이름을 얻는 것보다 이름값 하기위해 살아 왔다는 사람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공자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난 고대 중국의 유학자이자 유교의 창시자이며 사상가다.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자리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직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걱정할 뿐이다. 나는 세상에서 이름을 얻는데 연연하지 않는다. 이름값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다.”라 했다.

그래서였는지 공자는 관료로서 실패한 사람 중 하나다. 하지만 공자는 결코 실패한 자가 아니다. 제자들이 스승 공자의 가르침 언행을 모아 책으로 펴냈

다. 그 책이 오랜 세월 전해져 오는 논어라는 책이다.

논어에 전해지는 공자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앞뒤로 끄덕이며 믿고 따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름을 얻는 것보다 이름값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이다.

국회의장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정치인으로써 당대표를 하면 뭐하는가? 그것들을 하면서 그 직을 빌미로 이름에 돈을 잔뜩 벌라 구린내 풍기면 그 것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한마디로 좋은 일은 못할망정 나쁜 짓을 해선 안 된다. 다시 말해 충신은 되지 못할망정 역적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치를 한다는, 그리고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똥냄새부터 풍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적지 않다. 그저 이름만 얻는데 급급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똥개 짖듯 광장 짖는다. 여기저기에 똥도 싸고 오줌도 싣는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꽃가마를 탄 듯 거

리를 활보한다. 공자께서 이럴 때면 사람들에게 그들 이름값 좀 하라며 따귀라다 때려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공자에게 따귀 백 천 번 맞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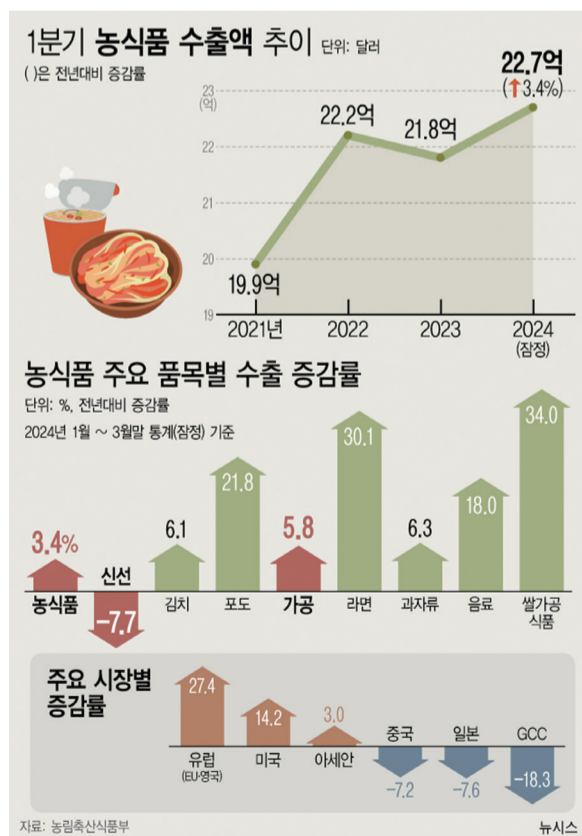
정치권력이라 하면 사족을 못 쓰는 그들, 공자처럼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이름값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겠는가?

요즘 정치한다는 사람들 하는 언행을 보고 듣다보면 1960년대 똥개처럼 보인다. 개들도 영리하여 짖는 것, 먹는 것, 싸는 것, 모두 가려가며 한다.

어쩌다 인간이 권력만 보이면 똥개 저리가라 하듯 행동거지 하는지,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안타깝다 못해 추하다. 그래서 부탁하는데 공자가 했다는 말, 난 이름을 얻는데 연연하지 않는다, 이름값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 말을 사무실 벽에, 책상 위에 적어 놓고 보고 또 보고 그러면 안 되겠는가? 제발 그래서 훌륭한 정치지도자로 태어나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